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3월 22일(금)  
..(음력 2월 13일)..  
Пятница  
22 марта 2024 г.  
№ 11 (1207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 18일, 크림과 세와스토폴리 러시아와 통일된지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공원에서 이를 기념하는 공연이 열렸다. 공연에는 사할린주의 예술단들, 보컬리스트들 등이 출연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 존경하는 사할린의 문화계 종사자 여러분!

3월 25일은 러시아에서 문화계 종사자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 국민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직업 기념일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로 여러분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추억을 남기며, 그들을 더 나은, 더 순수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문화발전을 위한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는 체호브센터에 새로운 무대를 열었습니다. 창작의 공간과 미술관을 열었으니 전 지역 구석구석에서 계몽적인 활동을 이어갑니다.

사할린주의 문화적 생활은 매일 다채로움으로 풍성합니다. 연극 <미친 돈>, <튀김 또는 국제 생선의 날>은 찬란한 행사였습니다. 오페레타 '실바'를 원작으로 한 <차르다쉬의 공작 부인> 연극공연은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과 미술가들의 전시회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영화와 공연과 노래와 영상과 책, 그림들이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전문성과 성실한 노고와 아름답고 선한 이상을 위해 일하시는 문화계 종사자 여러분과 원로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창의적 에너지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문화계 종사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재선

2024년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이번 투표는 전국 약 3분의 1 지역에서 원격 전자투표로 실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조서를 100% 처리한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87.28%, 7,630만 명)로 재선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선거는 러시아 현대사에서 기록적인 투표율(77.44%, 8,71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할린주에는 유권자 총 292,61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투표율은 78.92%에 달했다고 사할린주 중앙선거위원회가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광학 스캔 투표함, 일반 투표함, 이동식 투표함에서 유효 투표지 28만 6,843개와 무효 투표지 5,644개가 나왔다.

사할린 유권자의 표는 다음과 같다.

블라디미르 푸틴 - 86.37%(252,615표)

니콜라이 하리토노브 - (러시아연방 공산당), 4.61% (13,470표)

블라디슬라브 다완코브 - (새로운 사람들), 3.85% (11,254표)

레오니드 슬루츠키 - (러시아 자유 민주당), 3.25% (9,504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사할린동포도 적극 참가하여 투표소에 가서 자신의 투표 인증사진도 많이 찍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거주하며, 올 가을에 만 100세를 맞이하는 이 손귀 어르신은 선거 참여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 지난 16일(토)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맥을 찾은 선거위원회 관계자들이 어르신들에게 꽃다발을 선사하여 다가오는 생신도 축하했다.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은 5월 7일에 거행할 예정이고 대통령 임기는 6년이다.

(본사 기자)

## 단신

### <우리 함께, 스포츠> 동계 장애인올림픽 사할린에서 개막

3월 19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대규모 경기 개막식이 열렸다. 전국 16개 지역에서 알파인스키, 휠체어 컬링 경기에 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3월 21일(목)부터 26일(화)까지 경기는 '고르니 위즈두흐' 스키장과 '위스토크' 교육훈련센터에서 진행된다.

패럴림픽 경기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 사마라, 첼랴빈스크, 튜멘, 모스크바주, 크라스노다르·페름·캄차트카·크라스야르스크 변경, 한티-만시이스크 자치구, 우드무르치야 공화국과 바쉬코르토스탄 공화국 등지에서 온 선수들이 참가한다. 사할린주는 90명의 선수들과 코치들이 대표한다.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이 이런 대규모 대회의 장이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큰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분들은 목표달성에 대한 인내의 빛난 모범입니다. 선수들에게 행운을, 관중들에게는 밝은 일상을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 사할린 소비자보호감독청, 사할린에 홍역 발생 확인

사할린주에 올 초부터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해 검진 결과 35명이 확진됐다고 사할린 소비자보호감독청이 전했다.

홍역은 주로 아동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사할린과 쿠릴의 아동들 사이에 감염률은 77.6%이고, 성인 중에서는 11명이 확진됐다.

'전염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사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며, 나머지 환자들은 사할린주에 거주자들로서 감염됐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이 홍역이 발생한 러시아 연방 지역을 다녀온 경우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3월 1일 모스크바 발 6283항공편으로 3월 2일 사할린에 도착한 승객들과 3월 3일 유즈노사할린스크발 4621항공편으로 유즈노쿠릴스크에 도착한 승객들은 병원을 방문하길 당부하고 있다.

### 사할린의 스키점프 선수들, 러시아 챔피언 대

3월 19일 니즈니 타길에서 열린 러시아 스키점프 선수권대회에서 사할린의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냈다. 러시아 13개 지역에서 출전한 79명의 최강 스키선수들이 K-120 스키점프대에서 우승을 위해 경기를 치렀다.

'경기 단체전에서 블라디미르 스피와코브 코치의 지도 아래 사할린의 스키점프 선수 막심 콜로보브, 알렉산드르 바체노브, 니키타 로보다, 제니스 공이 금메달을 따냈다.'고 소식이 전해졌다.

새고려신문

##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사할린주 고정자금에 기록적인 투자

사할린주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3천 53억 루블이라는 기록적인 투자액 유치에 달성했다. 총투자량에서 석유가스 부문의 비율은 27%에 불과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사업위원회에서 밝혔다.

안톤 자이체브 주정부 부총재는 사할린주 고정자본에 유입되는 투자의 역동성에 대해 설명했다.

"대외적 요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지역에 지난해 3천 53억 루블이라는 기록적 투자금이 유치되었다. 동시에 총투자량에서 석유가스 부문의 비율은 단지 27%였다. 예를 들면 2021년에는 이 부문의 투자량은 49.6%였다.

이번에는 건설, 에너지, 교통 운송 및 물류, 수산업단지, 석탄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덕분에 이러한 성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부총재는 강조했다.

회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향후 코르사코브 지역의 오호츠크에 구역에 시행할 계획인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오호츠크에 구역은 사할린 남부의 가장 인기 높은 관광지 중 하나다. 지난해에 이 마을을 20만 명이 방문했다. 이는 이 마을이 섬의 야생적 자연여행의 출발점이라는 것과 연관돼 있다. 또한 여기에는 사할린 주민들과 섬 방문객들에게 인기

있는 해변도 있다. 이 휴식의 장소가 모든 현대적 표준을 갖추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획 실행의 참여를 위해 사업가들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첫 단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광객들에게 인기있는 해변은 '시니 플라그(파란 깃발: 최고 품질 영역)' 첫째 분류 영역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높은 수준의 편안함과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코르사코브의 알렉산드르 이와쇼브 시장은 "이곳에 청결한 해변과 해안선을 제공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성하는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안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실시간 전망대를 설치하고, 아동을 위한 해수욕 구역을 마련하며, 응급처치소를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관광시설로서 파라솔과 해변의자, 샤워실, 보트 운항, 안내소, 양질의 가족 휴식을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춘 예정이다.

해변 정비작업은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대규모 계획의 일부다. 앞으로 오호츠크에 구역 투나이하 호수에는 자전거 하이킹, 도보 하이킹 코스를 조성하고, 특별행사장,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운영 및 쇼핑을 위한 추가 장소, 사우나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 사할린 교수와 학생들, '교육공간에서 동부 아시아의 언어와 문화' 국제포럼에 참석

지난 3월 13~16일 모스크바 시립대학교(모스크바시립사범대학교) 외국어대학에서 제1회 국제포럼 <교육 공간에서 동부 아시아의 언어와 문화>가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중국학, 한국학, 일본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포럼의 목적은 동부 아시아의 언어와 문화 연구 및 개발에 관한 러시아의 주요 동양학자, 대학 교수, 젊은 연구가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통일된 과학 및 교육 공간을 만드는 데 있었다.

포럼 첫날에는 동양학 및 교육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기조 연설을 발표했다. 발표 주제는 '동양언어 연구', '러일 문화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인구통계학적 상황', '동부아시아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 '조선시대 교재', 그리고 '중국 최초의 황제의 묘지' 등등이다.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3부(중국학, 동양학, 한국학)으로 나뉘어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분과회의가 열렸다. 3월 16일은 대학생 과학의 날을 맞아 청년 과학연구의 일환으로 자신의 첫 과학적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번 포럼에 사할린국립대학교 교수와 학생들도 참석했다. 이는 작년 11월 사할린 국립대학교와 모스크바 시립대학 간의 협력 협정체결로 가능했다. 협력협약은 사할린국립대가 <우선 순위 2030>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아시아와의 대화>국제학교 기획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모스크바 포럼에서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베라 학장이 <사할

린 국립대학교의 예비 한국어 교사 양성 측면에서 문화계몽 활동>이란 주제로 발표해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동 대학 외국어학과장 코르네예와 인나 한국어 교수는 <천 리 길은 ... 유치원에서 시작: 입학 지원자 준비>란 주제로 활동교실을 열어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이번 포럼을 찾은 사할린 대학생들의 발표의 주제도 재미있었다. 학생들은 <중등학교 한국어 수업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는 수단으로서의 만화>(사할린국립대 2학년생 읍스트롭스카야 예와, 김 빅토리아), <문화 간 의사소통 수단방법인 '민속 놀이', 한민족놀이 '제기차기', 타지크 민속 놀이 '랴가'>(사할린국립대 3학년생 압두라흐마노와 마르하보)란 주제로 자신의 첫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연구 공유할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대학생들과 많이 교체하여 학생들의 교육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며, 포럼은 자신의 성장에 유익한 자리였다고 전하고, 또한 모스크바 학생들은 사할린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

사할린 대표단은 포럼 참가에 대해 만족하며 교수 간, 학생 간 많은 교제가 이루어져 교육을 위한 통일된 공간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랐다.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베라 학장은 "아시아와의 대화'국제학교 기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협력활동이 미래를 보여준다"며 "2회 '아시아와의 대화'국제학교는 올 5월에 말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순신 본사 기자)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견습 기자)

## 이모저모

### <즐거운 출발> 행사에 사할린의 가정들 참가

3월 16일 가정의 해의 일환으로 <즐거운 출발> 행사가 사할린주에서 진행돼 우글레고르스크 주민들이 참여했다. 주 스포츠부는 가정팀들이 잘 준비하여 서로서로를 배려하며, 속도와 민첩성, 정확성 속에 서로 경쟁했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스웨틀라나 포포와 훈련 강사는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 스포츠인 가족들의 끈끈한 단합을 보여주며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고 말했다. 이 행사에 자녀를 둔 가정만 아니라 지역 '배구 체육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이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공 굴리며 목표점 돌아오기, 훌라호프 게임에서 경쟁을 벌였다. 사할린 주민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며 얻은 정서와 활력은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러시아 가정의 해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들은 가정의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할린주도 예외없이 이런 가족 활동을 위한 자체 행사들을 조성했다.

### Сахалинские семьи участвовали в «Веселых стартах»

16 марта в рамках Года семь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ла акция «Веселые старты»,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жители Углегорска. Команды показали хорошую подготовку и заботу друг о друге, соревнуясь между собой в скорости, ловкости и меткости,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спорта.

— Мы собрались и повеселились, показав сплоченность семей на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 отметила тренер Светлана Попова.

Участие в стартах принимали не только семьи с детьми, но и воспитанники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Ш по волейболу» и их родители. Команд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ведении мяча, прохождении змейкой через конусы, а также в играх с обручем. Заряд эмоций и энергии,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и сахалинцы во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нет хорошей памятью о прошедшем событии. Отметим, что в рамках Года семьи в России проводятся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ддержку и укрепление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е стала исключением и организовала собствен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акций.

### 사할린의 학생들 지역 석유가스산업을 알게 되다

<사할린의 전통.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있다> 성과 전시회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 석유 채취 가스프롬' 회사 창립

일 기념이 조성됐다. 사할린의 가스산업 종사자들은 사할린 대륙봉개발에 적용되고 있는 첨단기술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무인 원격조정 기구인 실제 수중로봇은 전람회 주인공 중 하나였다. 이러한 기계들은 숨겨진 수중장비들을 점검하고, 유지 및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중량 400kg의 로봇은 50kg의 짐을 옮길 수 있으며, 높은 조도의 조명과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

전람회에서 선보인 대륙봉개발사업을 위한 해양탐사로봇은 대륙봉개발에 구조와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연방기관인 '해양구조대'가 사용하고 있다.

전람회 방문객들에게는 지질학의 기초에 대해 설명해 주고, 열화상 무인기를 보여주며, 학생들에게는 첫 구조작업의 기초를 가르쳐주었다.

###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нефте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ью региона

На выставке достижений "Сахалинские традиции. Нам есть, чем гордиться" состоялся день компании "Газпром добыча шельф Южно-Сахалинск". Островные газовики рассказали школьникам о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ях, которые применяются на островном шельфе.

Одним из героев экспозиции стал настоящий подводный робот — телеуправляемый необитаемый подводный аппарат. Такие машины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осмотра и обслуживания скрытого под водой оборудования. 400-килограммовый аппарат способен перемещать 50 килограммов груза, оснащен мощными прожекторами и камерой.

Представленного на выставке робота для работ на шельфе использует "Морспасслужба" — федера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занятое спасательными и сервисными работами на шельфе. Также посетителям выставки рассказали об основах геологии, показали беспилотники с тепловизором и преподали школьникам основы оказания первой помощи.

### 러시아 국민들, 가정지원에 대해 요망하는 조치 언급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은 현재 그들의 가족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어한다.

이에 대해 베테베은행과 '오토크리피예'은행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힌 가운데 가족 확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지원조치로서 응답자들은 양질의 무료 의료서비스 및 교육, 추가 자녀수당을 언급했다고 '오토크리피예'은행이 전했다.

가정의 해를 주제로 설문조사에 응한 두 명 중 한 명은 한 가정에 최소 2명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11%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선호했다. 북 캅카스 지역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망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12%는 1자녀 가정을 선호했고, 응답자의 17%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 현재 가족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국민은 가족 공동예산(59%)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18%는 가정 공동자금이 있고, 각 가족 구성원의 개인 예산이 있다면 '혼합형' 가족 예산을 선호했다.

응답자의 10%는 예산 배당을 선호했고, 13%는 가족이 없이 스스로 소비하는 것을 택했다.

편안한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에 대한 조사 참가자들의 견해는 분분했다. 응답자의 16%가 가족 구성원 1인당 한 달에 3만 루블리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주로 이 금액은 다자녀 가구의 가정이 언급했다. 22%는 3만-5만 루블리라고 응답했고, 5만-7만 루블리라는 응답자도 22%나 된다. 응답자의 약 1/5은 각 가족 구성원당 원하는 생활비로 7만-10만 루블리를 언급했고, 13%는 가족 구성원당 10만 루블리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설문조사 참가자 대다수(51%)는 가족 지출비용으로 가족 식비(51%), 의료서비스 및 약품 구매(41%), 의류 및 신발 구매(28%) 등으로 가족 생활비를 절약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어려울 경우 스포츠 강습, 가전제품 구입과 오락을 위한 지출은 스스로 금지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가족의 발전을 위한 러시아인의 견해로는 응답자의 52%가 무료 고품질 의료서비스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했고, 30%는 일반 교육기관에서 학생들 무료 교육과 식사를, 29%가 자녀를 위한 추가 지원금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25%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 조기연금에 대한 규정이 도움이 될 거라고 답했고, 20%가 토지에 대한 무료 및 특별 이용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출금 특별 삭감 혜택에는 20%가 응답, 응답자의 12%는 추가 가족 혜택과 특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웨테베은행과 '오토크리피예'은행이 3월 1일-8일까지 인구 10만 명이 넘는 러시아 도시들에 거주하는 18세-65세 연령의 주민 1500명을 대표 표본으로 하여 실시했다.

### Россияне рассказали о желаемых мерах поддержки своих семей

Большинство россиян хотели бы воспитывать больше детей, чем есть сейчас в их семьях. Это показал опрос\*, проведенный ВТБ и банком "Открытие".

(8면에 계속)

# 사할린동포 1세대 22명 일시 모국 방문

대한적십자사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시 중단됐던 '사할린 동포 일시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4년 만에 재개했다.

이번에 사할린에서 1세 어르신 20명은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의 인솔로 지난 16일(토)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방문단을 기다렸다. 이

곳에서 사할린방문단과 하바롭스크, 나호드카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2명이 합류하여 1세 어르신 총 22명이 베이징을 경유해 17일(일) 인천에 도착했다.

일시 모국 방문단은 6박 7일간 경복궁, 청와대, 남대문 시장 등을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영주귀국한 형제자매를 만나는 시간을 보내고 오는 23일 출국한다고 전해졌다.



17일(토) 한국에 도착한 동포들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출생해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1세대(22명)로 오는 23일(토)까지 국내로 영주귀국한 가족과의 만남 및 한국 문화체험 등 관광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본사 기자)

# 시공원 마슬레니차 축제에 1만 명 이상 방문

지난 3월 17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까운 문화휴식공원에서 마슬레니차 축제가 열린 가운데 1만 명 이상의 주민이 방문했다. 주최 측은 방문객들을 위한 흥겨운 대화와 민속 전통놀이, 창작 및 문화 활동교실을 준비했다. 축제 시작 전부터 톨러스케이트장에서는 사할린 생산제품 시장이 열려 장난감, 제과류, 인테리어 소품, 장식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었다.

성인과 어린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놀이대회와 활동교실이 열려 누구나 스스로 동전 화폐를 만들어보고, 장작을 쪼개며, 죽마를 탈 수도 있었다.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마슬레니차 기둥을 올라타 선물을 쟁취했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예술단들은 관객을 위한 춤과 노래로 공연을 펼쳤다. 겨울보내기 행사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과 세르게이 나드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이 참석하여 행사장을 방문하고,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취재: 이예식 기자)

# <시리우스. 사할린> 교육기획의 일환으로 스포츠 강습 개설

<시리우스. 사할린> 교육기획의 일환으로 첫 스포츠 강습이 개설된 가운데 가라테, 농구, 수영, 배구 종목에서 진행됐다. 이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재능있는 훈련생들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스포츠 훈련 강습은 3월 19일 통합무술센터에서 열려 3월 31일까지는 가라테 종목 강습이 진행되어 유즈노사할린스크, 흠스크, 유즈노쿠릴스크에서 온 11세-17세 연령의 학생 30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강습 외에도 학생들은 아쿠아 파크와 극장, 무인기 활동교실, 기타 등등을 방문하게 된다.

농구, 수영 배구 종목의 수업이 6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되고 72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이즘한글서예가전에서 만난 사할린아리랑

권경석 / 전국사할린동포연합회 회장

## 사할린아리랑

따뜻한 조선포를 놔 두고  
가라후토엔 내 여기 왜 왔다  
풍과 사나운 바다를 건너  
한많은 남화태(南樺太) 징용왔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즘한글서예협회 이종선 회장의 초청을 받고 13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 도착했다. 개막식을 마치고 30명의 작가들이 내놓은 100점이나 되는 한국 전통문화 서예작품을 감상했다.

이종선 회장님이 축사를 부탁하셔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은 바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해방이 되었지만,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70년을 러시아 국민으로 살아야 했지만, 우리는 독자적인 한글이 있어서 당당하게 디아스포라와 고난을 넘길 수 있었다."라는 말이 자연스레 나왔다. 그래서 러시아 전국에서 사할린에서만 한글판 새고려신문이 존재한다.

전국에서 불리는 아리랑이 다양한 작가들의 다양한 서체로 표현된 아름다운 서예작품이 되어 걸려 있다. 한국 전통문화 '서예'라는 예술 분야인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한글이 예술작품으로 탄생한 전시회이다.

아름다운 서체로 쓰여진 한글이 눈에 들어왔다. 서예로 탄생한 다양한 한글 서체는 꽃이 되고 나비가 되어 내게 말을 걸어온다.

전통문화를 지키는 이즘협회 작가들에게 존경심을 보낸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계승이 안되는 분야이다. 북한에는 서예전시회 같은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작품들이 국악신문사에 기증되어 국내외에서 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얼 이종선 회장님이 직접 '사할린아리랑' 작품 앞으로 나를 안내를 해주셨다. 그동안 국악신문 수요 연재 한글서예로만 받아보았던 예술작품을 직접 보니 감동이 밀려왔다.

특히 이 작품은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리더 공노원(사할린한국어교육협회 부회장) 선생이 갑자기 세상을 뜨기 5일 전 (2022년 9월 25일자) 수요연재로 나와서 더욱 스토리를 더하는 작품이다. 당시 9월 28일 양구 두타연에서 개최되는 PLZ축제에 인천과 양주에 사는 사할린동포들이 초청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종선 선생의 사할린아리랑 작품을 공노원 선생이 인쇄해서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다. 공 선생은 한얼 선생의 '한글서예로 읽는 우리 음악사실' 수요연재 내용을 자라나는 고려인 학생들에게 한글 수업에서 활용했다고 전해진다.

우리 부모들이 사할린에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는 아리랑이다. 당시 일하면서 힘들 때, 고향이 그리울 때, 결혼식 같은 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리랑이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리랑이 유일했다. 그래서



누구나 모이면 작대기로 장단을 두드리며 아리랑을 흥얼거렸다.

러시아나 유럽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곡은 없다. 우리 민족은 언제 어디서든 아리랑으로 하나가 된다.

올해는 파주에 정주한 150명의 사할린동포들이 귀국 15주년 기념 행사로 오는 23일 '파주아리랑 콘서트'를 개최한다. 그 날 휘날레에서 사할린 가수들과 이해솔 명창이 관객들과 '사할린아리랑'을 함께 부르기로 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사할린아리랑 축제를 통해 사할린에는 아리랑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2020년 사할린 정부는 우리에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앞에 아리랑공원과 아리랑누각을 선사해 주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이 불리는 전국 지역에는 아리랑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정선, 진도, 밀양, 문경, 상주, 영천 등. 사할린 아리랑공원에도 사할린 한인의 역사가 담긴 사할린아리랑이 새겨진 사할린아리랑노래비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늘 이 아리랑 작품들이 사할린 전시장에서 걸리기를 고대해 본다. 우리 동포들에게 큰 자긍심이 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한글학과도 생겨나고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할린 동포들을 대표해서 이 행사를 개최한 (사)이즘한글서예협회 이종선 회장과 지원을 해주신 (주)국악신문 기미양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다시 한번 이즘전을 축하한다.

## 사할린아리랑

무정한세월 야속하다  
청춘시절 날 데려와 팔십삼이 먹도록  
여기서 다 늙어 영혼이 되네.  
아이구 원통하고도 참말루 싫어  
누구게 다 한을 다 풀까요.  
서른다섯에 남편을 잃고  
혼저 자탄 애탄하며  
팔십 서이를 살아 나와  
누구게다 이런 한을 풀겠나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국악신문 제공)

# 새고려신문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 2024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사할린한인사('우리 가족' 주제 포함),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한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24년 5월 중순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43-59-80

콩쿠르조직위원회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Бейк Ку Сен выдвинут на присвоение звания Почё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города Хабаровска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Бейк Ку Сен выдвинут на присвоение звания Почё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города Хабаровска.

Процедуру присвоения звания Почёт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Хабаровска предваряет народ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на сайте города. Оконча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депутаты Хабаровской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в конце мая.



Бейк Ку Сен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 родился 23 января 1951 г.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школе был одноклассником Юрия Тена (1951-2003), будущего депута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и председа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ет в г. Хабаровске с 1967 год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Хабар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нженеров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с 1973 по 1993 гг. служил 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ах СССР. В 1980-х гг. выполнял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й долг в Республике Афганистан. Офицер запаса. Работал в Хабаровске заместителем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ДВЖД.

Активный участник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в России.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Учредитель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строительно-транспортной компании ООО Статус. Основатель Хабаров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Ариран», ставшего основ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города.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ями «За отвагу», «З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АМа», Грамотой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Воину-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у», памятным знаком губернатора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150 лет Айгунского договора. За заслуги». По итогам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паводка на Амуре в 2013 году награждён медалью «Участнику борьбы со стихией на Амуре».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йским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и странам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аграждён грамотой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орденом Республики III степени (КНДР).

Источник: <https://t.me/saramkor>

## Сеул возобновляет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погибших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18 марта Сеул возобновил ежегодный проект поисков останков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53 год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обнаружению 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погибших солдат, военослужащие будут вести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в 36 района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до начала ноября. В этом году агентство намерено собрать более 12.500 образцов ДНК членов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До настоящего момента удалось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останки 225 погибших солдат.

KBS World

##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ему адресу: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mailto:vika131065@gmail.com).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середины ма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Основная тема исследований -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7 марта 2024 г.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Ёнсэ (входит в тройку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ежегодной научной премии Ёнде (웅재학술상). Эта престижная премия за заслуги в области социально-гуманитарн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ежегодно комиссия отбирает трех самых достойных. Главная премия вручается именитому корейцу, заслуги которого вошли в историю страны, либо мир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Два других лауреата – это молодые перспективные ученые, опубликовавшие свои труды в Корею. В этот раз одним из лауреатов стал наш сахалинский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отборочная комиссия единогласно проголосовала за решение вручить эту награду сахалинскому ученому. Кстати, это только второй случай, когда премию вручили зарубежному корейцу.



Юлия Ивановна Дин

1979 г. рождения,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окончила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стория», магистратуру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стория», докторантур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РАН. Заведующий научно-редакционного от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Автор книг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Сахалин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и интеграции в советское 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 территория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Карафуту 1920 г.», «Историческое краевед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ниверситете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Именно этих трех людей – Марина Ивановна Ищенко, Михаил Станиславович Высоков, Андрей Николаевич Ланьков – я читаю главными своими учителями и наставниками, которые определили мой путь в науке и сделали меня историком. Также важную роль в моей судьбе сыграли мой науч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Корё Мин Кён Хён, профессора Пак Чон Хё, Бан Иль Гвон, Ким Джон Хон и друг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ученые.

Уже более 15 лет я занимаюсь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приходится изучать и работать над другими темами, вести другие проекты, моя первая тема остается для меня особенной. Она постоянно раскрывается новыми гранями,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ереосмысления и открытия нового.

Кстат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узнали меня как историка благодаря публикациям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Благодарю вас за это.

**- Вы окончили докторантур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РАН. Вам осталось завершить и защитить доктор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Ее тема тоже связана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и кандидатская?**

- Частично да, конечно, связана. Главным предметом моего кандидатс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стала пробл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ая не состоялась по ряду причин. Но эта проблема не возникла в вакууме, она тесно связана с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ой в регион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епатриацией японцев в Японию, массовой миграцией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 наши острова. Все эти события в совокупности и являются предметом моего докторс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Хотелось бы закончить написание текста диссертации в этом году, но не знаю, какие будут условия в плане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 и друг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 Вы являетесь заведующим научно-редакционного отдела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Ваша работа?**

- Основная работа в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сейчас – это периодическое научное издание журнала «Вест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музея». Для журнала необходима работа по отбору статей, корректурованию, редактированию, верстке и изданию. Вся эта работа лежит на научно-редакционном отделе. Нас в отделе всего три сотрудника, но общими усилиями мы справляемся с этой сложной работой. Также мы готовим к изданию все другие печатные работы нашего музея – монографии, каталоги, брошюры, сборники статей.

**- Вы очень много выступаете с лекциями в разных проектах. О чем они?**

- В основном, конечно, самая главная тема –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менно она интересует научные институты в Южной Корее и Японии. Много поездок в Москв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тут темы уже другие. Они связаны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заселением островов, их историографическим и историографическим изучением. Иногда является востребованной и такая тема, как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1950-1953 гг., которая являлась предметом моей магистерской диссертации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Корё.

**- Знаю, Вы являетесь одним из авторов учебников и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по истории и краеведению Сахалина. Можно об этом подробнее.**

-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2022 г. свет увидели три тома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я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сторическое краевед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 была в составе авторского коллектива. Это важная часть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которая ценна для каждого ученого. Если пригласили писать учебник – это уже некое признание заслуг в научной сфере. Поэтому, для меня эта работа была особенной, постаралась сделать все на высоком научном уровне. К тому же, я писала часть параграфов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я, относящегося к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X в., отразила там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и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се ранее выходившие учебники по истории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не включали никак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о корейцев.

(Оконча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Сеуле открылся Саммит за демократию

18 марта в Сеуле открылся Третий саммит за демократию,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три дня. В первый день работы после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состоялась министер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на тему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демократия».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ысшие должностные лица из 30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госсекретарь США Энтони Блинкен. Затем состоялся круглый стол с участием 20 докладчиков из РК и из-за рубежа.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цифровые угрозы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м процесса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инновации и роль демократии в защите онлайн-свободы. Пленарное заседание лидеров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вечер 20 марта,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саммита. На нём выступят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Дании Метте Фредериксен и президент Кении Уильям Руту.

## РК и Россия обсуждают ситуацию с задерж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цем

13 марта посол РК в Москве Ли До Хун встретился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Андреем Руденк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остоявшей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он попросил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вопросах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ащиты прав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ина, задержанного по обвинению в шпионаже. В тот же день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Д России Мария Захарова заявила, чт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е ведомство «находится в тесном контакте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и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задержанному права на консульский доступ». При этом Захарова отказалась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обвин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ина, заявив, что это конфиденциальный вопрос. Ранее на этой неделе агентство ТАСС сообщило, что южнокореец по фамилии Пэк с конца февраля содержится в следственном изоляторе «Лефортово» в Москве, куда он был доставлен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Минист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сообщило, что поддерживает контакты с российскими властями. Пэк, являясь миссионер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группы Global Love Rice Sharing Foundation, на протяжении более чем десяти лет оказывал помощ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беженцам. Как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фонда Ли Сон Гу, «обвинения в шпионаже являются либо недоразумением, либо преследуют политическую цель». Поэтому фонд будет искать пути его освобождения.

## РК участвует в борьбе с глобальным мошенничеством

11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страны-члены Большой семёрки, РК, Австралия, Новая Зеландия и Сингапур, приняли Заявление о предотвращении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ошенничества. Первый в мире документ, касающийся борьбы с мошенничеством в глобальном масштабе, был принят 11 марта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го дн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проблеме глобального мошенничества (Global Fraud Summit). Она проходит в Лондоне. Как отмечено в принятом документе, мошенники становятся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сё более изощрёнными. В этой связ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и частные лица несут общ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реагирование на растущую угрозу. Глава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минис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Ли Сан Мин, заявил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что Сеул постоянно сотрудничает с Интерполом в розыске и репатриации на родину подозреваемых в мошенничестве. Кроме того, РК участвует в проекте Интерпола по задержанию членов преступ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анимающихся голосовым фишингом.

## Глава минздрава РК обеспокоен отставкой профессоров-медиков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К Чо Гю Хон выразил «серьёзную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по поводу решения профессоров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в массовом порядке уйти в отставку. Комитет по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Кореической медицинской ассоциации объявил в конц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что профессора 16 медицинских вузов уйдут в отставку с 25 марта, поскольку систем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казалась парализована забастовкой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К массовым действиям против плана увеличения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олее 90% из 13 тысяч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будет трудно понять профессоров, которые оставляют своих пациентов без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е желая идти по пути диалога и компромисса», - добавил министр. Он призвал профессоров сосредоточить усилия на том, чтобы убедить студентов возобновить занятия, а врачей-интернов вернуться в больницы,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няв участие в дискуссиях по улучшению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Чо Гю Хон выразил намерение встретиться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пяти крупнейших многопрофильных больниц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RKI

## Губернатор становится желанным гостем в Пхеньяне

**Москва/Владивосток, 21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прибыла в Пхеньян в то время как две страны укрепляют свои связи после редкого саммита своих лидеров в сентябре,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я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МИ Севера, отслеженных в Сеуле.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Андреем Малушевым прибыла на Север накануне по случаю 75-лет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глашения об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 культур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ЦТАК). В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вошли

член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труппы Приморского филиала Мариинского театр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Отдельно ЦТАК сообщило, что делегация во главе с Олегом Кожемяко, губернатор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России —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который граничит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рибыла в Пхеньян накануне. Это стало вторым визитом Кожемяко в Пхеньян с декабря, когда он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Ток Хоном.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 углубля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широком спектре областей после саммита межд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лидером Ким Чен Ыном и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сентябре.

##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ГУ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Языки и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13-16 марта 2024 года в Московском город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МГПУ прошёл Перв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Языки и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На форуме встретились специалисты в области китаеведен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и японоведения. Цель форума — создание единого науч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учёных-востоковедов,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узов, молоды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по вопросам изучения и освоения языков и культур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первый день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выступили ведущие эксперты в област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и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дставившие пленарные доклады по разнообразным темам. Темы докладов охватили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вопросов, включая изучение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русско-японскую культурную связь, демограф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КНДР и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сторию и культуру стран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орейские учебные пособия эпохи Чосон и погреб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ервого императора Китая.

С 14 по 15 марта прошли секционные заседания, где специалисты в области китаеведения, японоведения и корееведения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научные доклады.

16 марта состоялся день студенческой науки,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молод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рассказали про результаты своих перв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форум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ГУ, которые побывали в Москве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 Московским город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принятого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школы «Диалог с Азией» (программа «Приоритет 2030»).

Особый интерес у автора вызвала работа в секции корееведения.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поделилась ценнейшим опытом и методикой работы с будущ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педагогами, применяемой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Институте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Она выступила с докладом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ак аспект подготовки будущих педагогов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на круглом столе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различных вузов страны.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вызвал мастер-класс "Дорога в тысячу ли начинается с... детского сада: как вырастить абитуриента" от заведующего кафедрой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я ИФИИВ Инны Корнеевой. Она познакомила с особенностями преподавания и из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а Сахалине, подходах и методах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применяемы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м. Благодаря выступления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ГУ, участники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обрели новые знания о культур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лоссальном влиянии в регионе аутентичных корейской и японской культур. У столичных студентов появился интерес к региону, как к возможному будущему



месту работы.

В рамках студен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и и сахалинские студенты.

Студенты 2 курса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Ева Овстровская и Виктория Ким представили доклад "Мультфильмы как средство развит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редн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е", а студентка 3 курса Абдурахманова Мархабо выступила с темой "Народные игры как форма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на примере корейской игры «чегичаги» и таджикской игры «клянга». Выступления студентов СахГУ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и вызвали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ауд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е студенты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от форума.

**Ева Овстровская:** "Студентам МГПУ было особенно интересно узнать про жизнь и учебу на Сахалине, наш быт, традиции и как проходит об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Наш совместный с Викторией Ким доклад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ультфильмов на уроках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был интересен всем слушателям, желающим узнать потенциал данного средства обучения, поскольку не так мн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рассматривают подобную тему. Также нам удалос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о студентами МГПУ. Мы обсуждали обучение в вузах и сравнивали быт и обычаи в разных городах. Этот форум лично для меня -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азать свои знания, получи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экспертов и, конечно же, начать путь карьерного становления, поэтому я была очень рада получить такой опыт".

**Виктория Ким:**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форума мы не только узнали много нового, но и выступили с докладами по интересующим нас темам, а также пообщались и пообщались со студентами МГПУ, которые обещали в будущем посетить Сахалин. Рада, что смогла здесь выступить, пообщаться, прекрасн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за что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организаторам".

**Мархабо Абдурахманова:** "Мне выпала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бывать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ерв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оруме «Языки и культуры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Узнала много новой интересной информации, а также смогла показать свои знания. Спасибо родному СахГУ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таком мероприятии".

«Студенческая мобильно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бмениваться опытом с ведущими учеными-востоковедами страны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университета в программе «Приоритет 2030».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в ноябре 2023 г. на базе СахГУ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школа «Диалог с Азией».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работы школы был заключен договор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МГПУ. Впереди много планов. Участие в форуме на базе Мос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один из шагов к активному долгосроч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 подчеркнула директор ИФИИВ Эльвира Лим, добавив, что следующая школа «Диалог с Азией» планируется в конце мая 2024 года.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 재외동포협력센터, '2024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모집

국내 대학 학사과정 및 석·박사 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학생 100명 선발 4월 12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 통해 지원 신청 접수



2023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역사문화체험 단체사진 (사진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2024년도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3월 14일 밝혔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국내 대학 학사과정 및 석·박사 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생활비(재학기간 중 매월 95만원), 최초 입국·귀국 항공료, 최초 소요경비, 보험료 등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진학 전 한국어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학중인 장학생들간 지역별 교류 활동과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4월 12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에서 신청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내야 한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관할 재외공관과 코리아넷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넷(www.korean.net)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외서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재외동포청,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 본격화과기정통부·방통위·디플청과 업무협약 체결... 올 하반기 시범운영 목표로 추진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공공아이핀 폐지 이후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고,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지난 6월 5일 개청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행 계획의 국민드림 프로젝트 과제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의 실무 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한국 휴대전화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동포청은 올해를 해당 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전자여권 등을 포



재외동포청은 3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최영한 동포청 차장, 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 (사진 재외동포청)

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 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지털플랫폼정부)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 각자의 역할수행과 함께 해외 체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유관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제공 대상 및 범위 확대 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국 휴대전화 없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가 국내 경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 5살때 실종돼 이듬해 미국 입양된 한인, 40년 만에 친가족과 만났다

재외동포청·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시행 '유전자 검사제도'로 성과 3월18일 어머니와 화상 상봉 "가족과 재회한 기쁨 이루말할 수 없어"

40년 전 실종돼 보호시설에 맡겨졌다가 미국에 입양된 한인이 정부의 지원으로 꿈에도 그리던 가족과 지난 18일(월) 상봉했다.

주인공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입양한인 벤자민 박(한국명 박동수·1979년생) 씨로, 그는 이날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 이애연(1941년생) 씨와 친형 박진수 씨 등 가족을 화상으로 만났다.

박 씨의 가족 상봉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경찰청(청장 윤희근)·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2020년부터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무연고 해외 입양한인의 유전자를 채취해 한국 실종자 가족과 대조하는 유전자 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을 찾은 사례는 박 씨가 다섯 번째다.

박 씨의 실종에서 40년만의 가족 상봉까지 사연은 절절하다. 어머니 이 씨는 지난 1980년 박동수 씨를 포함한 4남매를 경남 김해의 큰집에 잠시 맡겼다.

남매들은 1984년 어머니를 찾겠다고 집을 나갔다가 실종됐고, 동수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거쳐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미국의 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수 씨는 2001년 모국 땅을 처음 밟았다. 헤어진 가족을 찾고자 입양기관을 찾아갔지만,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2012년 재입국해 계명대학교 어학당을 다니던 중, 유전자검사를 통한 가족 찾기에 희망을 품고 담당 경찰서를 방문해 유전자를 채취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2016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야 했다.

친형 진수 씨도 실종된 동생 찾기에 나섰다. 2021년 10월경 '실종된 두 남매를 찾고 싶다'라고 실종신고를 하는 동시에 어머니의 유전자를 채취했다.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이듬해 8월부터 생겼다. 박동수 씨와 어머니가 친자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인 모친과 달리 동수 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데다 2012년 계명대 어학당 재학 시 사용했던 전자메일 주소 외에 남은 연락처가 없어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장기실종 중인 동수 씨의 소재 확인을 위해 제주경찰청 소속 미제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출입국외국인청과의 협조와 누리 소통망을 활용한 조사로 박동수 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청을 통해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해 최종 소재지를 파악, 마침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감정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이 씨의 친자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후 경찰청은 동수 씨와 가족들의 상봉을 주선해 그 일정과 장소·방식 등을 세심하게 조율한 끝에 18일 40년만에 감격스러운 만남이 이뤄졌다.

상봉은 당장 입국이 어려운 동수 씨가 화상으로라도 먼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현재 어머니가 입소중인 요양 시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극적인 만남 이후 동수 씨는 "친가족과 재회하게 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친형 진수 씨는 "유전자 검사 제도 덕분에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찾지 못한 여동생(박진미, 1977년생)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경찰청, 재외공관과 더욱 협력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해외 입양동포가 가족 찾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이 자신을 소중히 존중해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첨단 유전기술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도,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가족 상봉 이후 개명, 가족관계 정리, 심리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 이 모 저 모

## (2편의 계속)

К наиболее важным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позволяющим принять решение об увеличении семьи, респонденты отнесли качественную бесплатную медицину и образование, а также налич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ыплат на дете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банка "Открытие".

Каждый второй участник опроса, посвященного Году семьи, считает, что в семье должно быть как минимум два ребенка. Еще 11% опрошенных выступают за троих детей и больше. О желании иметь большую многодетную семью чаще других заявляли жители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Рождения одного ребенка достаточно для 12%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17% говорят, что в семье должно быть столько детей, сколько получится — у всех раз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И абсолютному большинству опрошенных хотелось бы воспитывать больше детей, чем есть в его семье сейчас.

Россияне, как правило, ведут общий семейный бюджет (59%). Еще 18% предпочитают "смешанный" тип семейного бюджета, когда есть и общий фонд, и личные бюджеты каждого члена семьи. Раздельный бюджет предпочитают 10% опрошенных. Еще 13% трактуют все сами, так как у них нет семьи.

Мнения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о необходимом количестве денег для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и и достатке разделились. Сумма в 3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на каждого члена семьи приемлема для 16% опрошенных. Чаще всего такую сумму назы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Сумма 30-50 тысяч рублей — ответ 22% и столько же респондентов говорят о сумме в 50-7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чти каждый пятый участник назвал желаемой сумму в 70-1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каждого члена семьи. Еще 13% — свыше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Затруднились с ответом 7% опрошенных.

Большинство (51%) участников опроса не готовы экономить на таких статьях семейных расходов как еда (51%),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и лекарства (41%), а также на покупке одежды и обуви (28%). А вот в занятиях спортом, покупке бытовой техники и развлечениях респонденты готовы себе отказать в случае финансовых

трудностей.

Для развития семьи, по мнению россиян,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бесплатное качественно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52%), бесплат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питание детей в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30%), а такж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ыплаты на детей (29%). Право на досрочную пенсию многодетным родителям поможет 25% опрошенных.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го или льгот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земельными участками интересна 20%, помощь в частичном погашении ипотеки хотели бы получить 20% опрошенных. 12% заявили, что не нуждаются в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емейных льготах и преференциях. Опрос проведен ВТБ и банком "Открытие" 1-8 марта по репрезентативной выборке среди 1500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65 лет в городах России с населением более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예비 엄마들 모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체르다크' 지성-바에서 70명의 예비 엄마들이 모였다고 '마마페스트' 홍보부가 전했다.

3월 16일(토)에 이 행사가 열린 가운데 강연, 임신에 관한 세미나, 활동교실, 의사 및 전문가와의 상담 등으로 사할린의 임신한 여성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마마페스트(엄마 축제)"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비 엄마들 사이에 특별히 의미 있는 관계 조성 및 경험 공유를 위한 매개체가 되어 이는 진정 모성 축제였다. 여기서 각각의 참가자들은 응원과 감성, 새로운 친구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전해졌다.

극동 연방관구와 시베리아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예비 엄마들의 모임이 조직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девичник для беременны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70 будущих мам собрались на девичнике в интеллект-баре «Черда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лужба «МамаФест».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16 марта. Для сахалинок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они слушали лекции и семинары про беременнос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а также консультации у врачей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МамаФест стал не только источником полезной информации, но и площадкой для обмена опытом и создания непередаваемых связей между будущими мамами. Это стало настоящим праздником материнства, где каждая участница нашла поддержку, вдохновение и новых друзей»,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Отметим, что подобные девичники организуют в регионах ДФО и Сибири.

### 돌린스크의 주민들 자선 행사를 위해 수천 개의 블리니 구워

'러시아 여성연맹' 돌린스크 지부 활동가들이 이틀간에 걸쳐 특수군사작전 참전장병들 지원을 위한 수천 개의 블리니(팬케이크)를 구웠다고 돌린스크 문화센터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전했다. <러시아는 바로 우리!> 자선공연에서 블리니를 판매한 자금은 참전장병들을 위한 무전기 구입에 쓰였다. <러시아는 바로 우리다!> 축하 자선공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슬레니차 축제일이다. 오늘 블리니를 구입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은 선행에 참여하신 겁니다!>라고 행사 주최 측이 감사인사를 전하고 끝으로 활동가들이 함께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Жительницы Долинска испекли тысячи блинов дл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акции

За два дня активистки До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енщин России» испекли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блинов для помощи бойца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Централь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Долинска.

Деньги от проданных н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м концерте «Россия - это мы!» блинов ушли на покупку раци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пришел на праздничны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концерт «Россия -это мы!» и сегодня на масленичные гуляния! Спасибо всем кто купил сегодня наши блинчики, вы внесли свой вклад в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ь!» - поблагодари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акции.

В конце активистк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вместе мы можем многое.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онус редактиру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